

어항을 중심으로 한 어촌·어장 연계 개발 주력 -한국어항협회 2004년도 정기총회 성료-



■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3월 10일 해군호텔(서울 신길동 소재)에서 2004년도 정기 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 해군호텔 1층 영빈관(수정실)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3년도 주요사업 및 결산 승인과 함께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한국어항협회는 '어항을 중심으로 한 어촌·어장 연계 종합발전과 항구적인 자립경영 기반 구축'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총 수지 예산 규모를 지난해 결산 대비 9억3천1백만원이 적은 70억6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주요사업으로 △어촌·어항·어장을 연계한 종합발전 방향 모색 △어촌어항 기술

개발과 조사연구 강화 △대국민 인식제고 및 새로운 어촌어항 문화 창달 △해양환경정화사업의 적극추진 △어항인의 총의결집 및 충실한 대변 △협회 업무영역 확대 및 정보화 기반 강화 등을 채택했다.

이날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박덕배 차관보가 대독한 치사를 통해 '배평암 회장을 비롯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하고 "현재 제정중에 있는 어촌어항법을 년내에 완료하고 한국어항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한국어항협회가 우리나라 어촌·어항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어촌이 어항을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발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어항협회 배평암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맞추어 어항관련 기술 개발은 물론 어촌어장의 정화 정비와 어촌 관광 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어항을 중심으로 한 어촌어장이 수산소득의 근간이 되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우리나라 어항어촌 발전 및 협회발전에 공이 큰 어항인에게 「제3회 자랑스런 어항인 대상」시상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 특별행사로 광주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 14호 강산제 판소리 심청가 예능보유자인 이임례씨의 판소리 공연이 있어 정기총회를 더욱 빛냈다. <관련기사 2.3.4면>

- 제3회 자랑스런 어항인 대상 수상자
 - 정덕용(주식회사 삼건사 대표이사)
- 감사패 수여자
 - 이상천 (주)부흥 대표이사
 - 송창수 금광기업(주) 상무이사
 - 황영운 성보건설산업(주) 상무이사
 - 김수남 수일종합환경(주) 대표이사
 - 강원수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 안익장 (주)헤인이앤씨 부장
 - 유정석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장
 - 장성식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행정사무관
 - 오양수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어항의 관광화 어촌의 공원화